

영암의 9월, 달빛생태도시 문화 예술 생태 행사 '풍성'

무화과축제 성료, 김창조 가야금 산조 페스티벌에서 반딧불이 축제까지 가을 만끽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무화과축제와 청소년 페스티벌을 성료로 시작으로 9월 한 달 내내 이어질 다채로운 달빛생태도시 문화·예술·학술 행사의 서막을 알렸다.

이달 5~7일 전남농업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2025 영암 무화과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찾으며 영암이 대한민국 무화과의 보고장임을 확인해 줬다.

6일 영암군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청소년 페스티벌 '오 해피 데이(Oh! Happy Day)' 역시 청소년이 기획·운영한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으며 성황을 이뤘다.

영암군은 두 축제의 열기를 이어, 9월 내내 영암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철학과 예술로 여는 가을(9/12~14일)

12일에는 도율 김용욱 교수가 청소년 센터 공연장에서 '새시대의 새일출 영암의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고, 이어 12~14일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이 가야금 산조기념관과 도갑사에서 개최된다.

산조 완성 130주년을 맞아 명인과 청



년예술가가 어우러져 산조의 분향 영암의 위상을 빛낼 예정이다.

◆가을밤의 낭만과 청년의 열정(9/20~21일)

20일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에서는 '월출산 달빛축제 & 반딧불이 축제'가 열린다.

발광다이오드(LED) 퍼포먼스, 반딧불이 생태탐방, 청소년 버스킹 공연 등은 가



족이 즐길 수 있는 야간 문화축제로 꾸며진다.

같은 날 유적지 청년광장에서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기념식과 토크콘서트, 청년기업·청년활동 전시·홍보 부스(청년마켓), 청년작품 전시, 축하공연이 이어져 청년이 주인공인 특별한 장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창업과 일자리 정보도 공유

해 지역 젊은이들의 도전과 성취를 응원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21일에는 대불산단에서 5개 종목 체육대회, 장기자랑, 전통놀이 등으로 산단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근로자 한마당 대회가 이어진다.

◆전통과 불교문화의 향연(9/26~27일)

26일부터 27일까지 월출산 도갑사에서 '제20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가 열린다.

풍수지리의 대가 도선국사의 탄신을 기리고, 영암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대표 문화축제다.

올해 행사는 도선국사 학술세미나, 탄신다례제와 법요식으로 시작해, 숲순환경영축제 개막 및 영화상영, 방향제·키링 제작, 사찰음식·미사음식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고돼 있다.

또한 지역예술단체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연 무대와 '도선국사 포토로드' 등 9종의 포토존도 준비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순천시 '잔망력케이션' 팝업스토어, 14일 종료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정원위케이 선과 글로벌 인기 캐릭터 IP '잔망루피'의 협업으로 진행된 '잔망력케이션' 콜라보가 오는 14일을 끝으로 운영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정원으로 떠난 잔망루피의 여름휴가'를 콘셉트로 순천만국가정원 및 정원위케이선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콜라보는 MZ세대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높은 주목을 받았다.

호수정원 10M 대형 잔망루피와 가을길 광장에서 여름휴가를 즐기고 있는 잔망루피 포토존을 비롯해 굿즈 팝업스토어 등이 어우러진 공간은 SNS 인증샷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잔망루피 보러 정원 간다", "굿즈 사러 출동"

등 관련 해시태그가 자발적으로 확산되며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팝업스토어는 오픈 초기부터 큰 인기를 끌었으며, 초기 인기 굿즈 6종이 품절된 이후, 현재까지 총 22종의 굿즈가 모두 품절됐다.

또한, 순천시 고유 캐릭터인 루미·똥이와의 콜라보 굿즈도 높은 관심과 판매 호조를 보이며, 지역 캐릭터 IP의 대중성과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시는 이번 협업을 통해 고유 캐릭터 IP의 대중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정원과 콘텐츠를 결합한 창의적인 시도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인파가 몰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광양시 이동형관광안내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4회 광양전어축제 출동을 전격 예고했다. 광양시는 이동형관광안내소가 오는 12일 개막할 제24회 광양전어축제에 출동해 감성적인 마케팅을 벌이는 등 광양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형관광안내소는 따스한 광양 햇살의 느낌을 살린 노란색 차량에 광양관광

'이동형관광안내소' 제24회 광양전어축제 출동 예고

감각적인 영상·광양관광 홍보영상 등 방문객에 감성마케팅

이미지를 랩핑하고 홍보영상 스크린과 리플릿 비치 기능 등을 도입한 움직임은 관광안내소다.

대형스크린에는 백운산자연휴양림, 찬란한 야경, 광양불고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광양의 관광자원을 담은 홍보영상을

반복 재생해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시는 광양관광 가이드북, 관광안내도 등을 비치하고 적극 홍보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광양 전역으로 유도하는 등 축제의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광양시 이동형관광안내소는 각종 축제, 박람회 등 잠재 관광객이 오가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광양관광의 가치를 브랜딩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제24회 광양전어축제 기간에도 매일 출동해 감성 가득한 광양관광을 알리고 관광객들의 여행 심리를 자극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성군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어르신으로 친조부, 외조부 모두 해당된다. 인터넷을 이용해 필수 온라인 교육 200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간

장성군, 손자녀 돌보는 어르신에 돌봄수당 지급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을 가지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봄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 소재지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오는 22일부터 수시 접수를 시작하며,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가족행복과 여성

다문화팀(061-390-741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며 "온 가족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전남 구례군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2025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의 후원으로 열리며, 탄소중립 실현과 건강한 흙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례군, '흙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행사장은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박람회의 주제를 생동감 있게 담아낸 주제관과 40여 개의 기업관, 건강한 음식으로 약선요리를 선보이는 약선셰프의 존을 마

련했다. 또한 친환경 플라마켓에서는 지역업체와 연계해 신선한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만나볼 수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도 풍성하다. 흙을 직접 만지며 생태 감각을 깨우

는 흙 놀이터, 텃밭 만들기, 자연을 집 안으로 들이는 테라리움 체험, 스탬프 염서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환경과 농업,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인 만큼 풍부한 전시와 체험을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강진·해남·영암 공동 투트랙 관광 마케팅 필요"

명소위주 관광+MZ세대·해외시장 공략 추가

강진·해남·영암이 공동 추진하는 '강해영 프로젝트'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위주의 명소·풍경, 전통적인 미디어채널 중심의 기존 마케팅과 함께 MZ세대와 해외 시장 등을 겨냥, 취향저격 이색체험,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신규 관광시장을 공략하는 '투트랙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진·해남·영암문화관광재단, 3개 지자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은 지난 3일 강진읍 청년숙 편에서 강해영 프로젝트 발전전략에 관한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협의회에서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강진점 교수는 "강해영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등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경계를 넘어서는 도전"이라며 "지역관광을 연계한 관광객 유입 및 재방문을 유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공동대응기금 우수사례로 인용되는 등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강해영권역은 이미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주목받는 남도 여행일번지"라면서 "행정경계를 넘어선 광역 관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연계 협력에 기반한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8개 시, 9개 군이 참여해 지역 자원의 매력들을 활용해 2박3일 이상 숙박하는 교류형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가가와현 세토우치 예술관광권을 소개하면서 "강해영도 브랜드 개발과 홍보 마케팅, 관광여행상품 등 콘텐츠 개발, 관광일자리 매칭 등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관광 비즈니스 육성, 국내는 물론 해외관광객 유치, 민간-공공 협력모델로서 지속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지역연계형 권역 관광마케팅조직(DMO)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추진 2년째인 '강해영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있는 지방소멸 공동 대응 연계협력 모델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공동 대응기금 우수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